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2. 2.(화) 17:20 (총 4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장재동 예보관 임재성	전화번호	051-718-0200 051-718-0328

4일 새벽, 경남서부내륙 눈 또는 비

○ 4일 새벽, 경남서부내륙 눈 또는 비

- 경남서부내륙 최대 5cm 눈
- 부산, 울산과 그밖의 경상남도 눈 날림 또는 빗방울
- 높은 산지와 고지대에는 눈이 쌓이는 곳
- 곳곳 빙판길, 4일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



[2월 3일(수) 밤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부산지방기상청장(청장 신도식)은 4일(목) 새벽에 경남서부내륙에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, 부산, 울산과 그 밖의 경상남도에는 눈 날림 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,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[기압계 전망]

- 기상청은 4일 새벽에 제주도 남쪽해상을 이동하는 고기압과 중국 북부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사이에서 강수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고,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2일 현재 우리나라 내륙을 중심으로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,
- 3일 밤에 서해북부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남쪽 해상에 위치하는 고기압 사이로 ① 온화하고 습윤한 공기가 강하게 불어들면서 강수 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밤 동안에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이동함에 따라 ② 저기압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수 구름대의 강도가 강해 지겠다고,
- 이후 찬 공기에 밀리는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4일 새벽에는 경남서부내륙에 눈 또는 비가 내린다는 설명이다.

[강수 전망]

-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남서부내륙은 4일 새벽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부산, 울산과 그 밖의 경상남도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, 높은 산지와 고지대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고도가 높은 산지는 눈으로 내리겠지만, 그 밖의 부울경은 저기압 남쪽에서 유입되는 온화한 공기에 의해 지면 부근의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하였다.

<예상 적설: 4일 새벽(00~06시) >

- 경남서부내륙(하동, 거창, 합천, 산청, 함양): 1~5cm

<예상 강수량: 4일 새벽(00~06시) >

- 경남서부내륙(하동, 거창, 합천, 산청, 함양): 5mm 미만

-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은 4일 새벽~아침에는 저기압 북서쪽에서 뒤따라 들어오는 찬 공기에 의해 쌓이거나 날린 눈이 녹지 않거나 비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.

- 또한, 이번 강수 예보의 관건은 1~2도 가량 미세하게 변화하는 지상 부근의 기온과 이로 인해 달라지는 강수 시작 시점에서의 눈·비 형태라면서,
 - 강수 구름대 뒤 따라 유입되는 찬 공기로 인해 밤 사이에 진눈깨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교통 안전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.
 -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여 지상 및 대기 하부(700~800m 상공)의 기온 변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, 강수의 시작 시점과 형태에 대한 최신의 기상정보를 1~2시간 간격으로 발표하겠다고며,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.
- 이후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높은 상공에 자리 잡는 온화한 공기에 의해 이번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